

박람회 단체 관람객이 몰려온다

토요일 11만명... 개막 57일만에 300만명 돌파



여수세계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300만명을 돌파하며, 단체 관람객과 퍼시픽을 겨냥한 '여름 흥행 전략'이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람회 조직자는 8일 "지난 7일 장맛비 속에서도 관람객 11만800여명이 박람회를 찾아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즐겼고, 누적 관람객도 3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박람회 개막 이후 석가탄신일 연휴였던 지난 5월(11만1131명) 이후 일일 최대 관람객 수다.

박람회 관람객은 지난달 2일 누적 관람객 수 100만명을 기록한 이어 지난달 20일 200만명을 넘어서고, 개막 57일 만인 7일 300만명을 넘겼다.

특히 다양한 할인과 이색 공연을 크게 늘린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1일 5만1932명, 2일 6만4433명, 3일 6만4211명, 4일 6만6073명, 5일 6만3467명, 6일 7만129명 등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이 꾸준히 늘었다.

또 지난 6일 세계청소년부장관 포럼에 참석 중인 17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50개국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박람회장을 방문, 문화공연을 여는 등 단체 관람객의 방문도 꾸준히 늘

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박람회장을 돌아보며 미래의 보고인 해양의 활용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또 7일 오전에는 세찬 장맛비까지 내려 관람객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1만명의 인파가 박람회장을 찾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우려했던 무질서와 혼란도 크게 없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대기열 관리, 식음 서비스 등 회장 운영은 안정

적으로 진행됐다.

조직위 조용환 홍보실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부터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액스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에 있어 단 한번 볼 수 있는 여수엑스포를 절대 놓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관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의 또 다른 즐거움인 팝 페스티벌의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9일 '맨발

의 디바'라 불리며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의 주인공 이은미가 1시간 넘게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다. 이은미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애인 있어요' 등 별세출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소화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활활하게 할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국민 가수 인순이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앵콜 요청에 힘입어 다시 한번 액스포 특설 무대에 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콜롬비아 전통문화공연

8일 여수세계박람회 액스포홀에서 콜롬비아 국가의날을 맞아 하イメ 알베르토 깐발 산클레멘테 주한 콜롬비아 대사, 이준희 한국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행사와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여수엑스포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날을 맞아 OECD가 '수산업의 재건' 보고서를 발행한다.

△OECD의 날(다목적홀·오후2시)

△바다복 공방(아린이극장·오전 11시)
△코믹서커스-아마루(네덜란드관·오전 11시)
△팝페스티벌-이은미(특설무대·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 수=6만 4127명(이하 8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312만 4008명

광주·전남·경남 31개 시·군

'지자체 관람의 날' 운영

여수 인근 지자체들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동쳤다.

광주와 전남, 여수 인근인 경남 남해와 하동 등 여수박람회 권역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7일 박람회 지원을 위해 여수시청에 모였다.

권도업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장은 2~3개 시·군을 묶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하는 '지자체 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키로 합의했다.

권도업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장은 2~3개 시·군을 묶어 박람회를 관람하도록 하는 '지자체 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키로 합의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관람객 이송 편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교통수단(관광버스)도 최대한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민들에게 박람회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관람에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31개 시·군 관련업무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정책국장 주제로 실무적인 문제를 사전 논의 했다.

이들은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성리 해수욕장 청소에 나섰다.

/임문택기자 mtlim@

박람회 참가국 종사자

여수 해양 쓰레기 청소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주요 국가들의 국제관 종사자들이 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청결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오전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미국관 최고 대변인인 필립 구스토를 비롯해 일본, 필리핀, 독일 등 여수박람회 참가 25개국 관계자 120여 명이 해양쓰레기 봉사활동을 치웠다.

만성리 해수욕장은 국내 유일의 검은 모래 해변으로 여수박람회장 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들은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성리 해수욕장 청소에 나섰다.

/임문택기자 mtlim@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737평

▶ A필지 도시형 생활주택(29평형) 20세대 건축허가필

▶ B필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타입) 48세대 건축허가 가능

▶ 매매가 14억5천만원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 60평원룸형빌라(산수동, 백운동) 5칸, 계평동 E마트 1층 1칸
대출 + 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림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7천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535평 30m 도로집,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유흥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co.kr

광주시의회 조호권 신임 의장

"변화·혁신·통합의 생활정치 펼것"

제6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조호권 의장은 6일 "집행부에 대한 절제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장과 부의장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후반기 의회가 변화와 혁신, 새로운 통합의 생활정치를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옆 사람의 한 걸음으로 148만 광주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신뢰와 믿음의 의회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지만 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대 후반기 의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정신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6대 의회가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유급 보좌관제와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등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회 진행상황과 상위법·법제화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시의회 실정에 맞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기자 cki@kwangju.co.kr

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일 이 사건과 관련 미측에 항의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우리측 위원장인 외교통상부 이백순 북미국장은 이날 합동위 미측 위원장인 임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청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대해 주아스 부사령관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서면 "민간인 수갑사건 사과"

한국 경찰 조사에 협력... 정부, 美에 항의

제임스 서면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최근 미군 현병이 한국 민간인에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면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목요일(5일) 오산 공군기지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절제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연루자들의 임무는 정지될 것"이라면서 "미군 자체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현병 7명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 인근 데오거리에서 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지만 지

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는 집행부와 수의 양바위

처럼 동반자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대 후반기 의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정신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6대 의회가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